

# 전남대 의대 지역인재전형 79.7% 선발 '전국 최고'

## 2025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 발표

전남대학교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의대 정원 163명 가운데 130명(79.7%)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정원 150명인 조선대도 100명(66.6%)을 같은 전형으로 선발하는 등 비수도권 의대 대부분이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인원의 60% 이상을 채용 예정이다.

교육부가 30일 각 대학으로부터 취합해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보면 지역인재전형을 시행하는 비수도권 26개 대학은 지역인재전형으로 1913명을 모집한다.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호남권(광주,전,남,북)에 있는 고교에 입학해 졸업한 학생이 선발 대상이다. 이 법의 시행령은 의대의 경우 강원·제주권은 지역인재를 최소 20%, 나머지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남대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79.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조선대(66.6%)를 비롯해 전북대(64.9%), 원광대(65.0%), 경북대(60.5%), 강원대(60.4%), 충북대(60.3%), 영남대(60.2%), 울산대(60.0%) 등 18개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60% 이상이다.

세부전형에서 전남대는 의대 모집인원 163명 가운데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106명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13명을 선발한다. 수능에서는 44명을 뽑는다.

조선대는 150명 가운데 88명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으로 10명, 52명은 수능으로 선발한다.

조선대 66.6%·전북대 64.9%

18개대 지역인재전형 60% 넘어

의대 '지방 유학 시대' 전망도

2학년 때 전공 선택 자율전공제

3만8천명으로 전년비 4배 늘어

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해 이번에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학생들에게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대를 노리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 가는 '지방 유학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수능 정시 합격점수 국수탑 백분위 300점 기준 2.91점 정도 하락 예상되고, 서연고 이공계 학생 중 수능을 통해 의대 지원가능권이 현재 45.4%에서 67.7%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전공 자율선택제도 확대돼 수도권 대학과 전남대 등 국립대(교대·특수목적대 제외) 총 73개교가 3만7935명을 자율전공으로 모집한다.

자율전공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의과대학 증원과 맞물려 올해 입시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율전공제는 학과·전공 구분 없이 대학에 입학해 1학년 때 진로를 탐색하고 2학년에 진학할 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교 51곳의 경우 자율전공 모집인원이 2024학년도 7518명



30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 학원가 건물 벽면에 '초6, 중1 의대준비반' 강화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따라 학원가에서는 조기 교육, N수생 강좌 개설에 나서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7.7%)에서 2025학년도 2만5648명(29.5%)으로 급증한다.

국립대 22곳도 2407명(4.5%)에서 1만2287명(26.8%)으로 대폭 늘어난다.

전남대 광주캠퍼스 자율전공학부는 85명을, 여수캠퍼스(창의융합학부)는 56명을 자율전공으로

선발한다. 조선대의 내년 자율전공학부 모집인원은 88명이다.

자율전공제의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종로학원이 지난 3월 수험생 110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무전공 선발 진학시 선호도가 컴퓨터소프트웨어계열 21.0%, 공학계열(항공, 생명공학 등) 20.2%, 미디어사회과학계열 15.6%, 경제경영계열 13.4% 등으로 이공계 풀림이 나타났다.

종로학원측은 "무전공 학과 선발은 특정학과에 풀림 현상을 수반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영광 이어 곡성군수도 10월 16일 보궐선거

### 이상철 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

오는 10월 16일 영광에 이어 곡성에서도 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 형을 유지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8일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5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를 결제했으나, 선거사무원 등은 각자 식사비를 낸 것처럼 연출하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선거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검찰

측 항소를 일부 인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곡성군수 권한대행을 맡은 이귀동 부군수는 입장문에서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주요 현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장 중심의 책임행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종만 영광군수도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정섭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생활비 왜 안내" 대학동기 가혹행위...2심도 징역형

### 법원 "가스라이팅은 해당 안돼"

법원이 심리적 지배인 일명 '가스라이팅(Gaslighting)'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법원은 피해자 스스로 지배 과정에서 벗어나고 가해자의 제지나 방해가 없었다면 가스라이팅이 아니라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여·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봄에 달군 나무 숟가락으로 자신과 동거 중인 대학 동기 B씨의 몸을 지지거나, 겨울에 찬물을 계속 뿌리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주목한 대목은 B씨가 심리적 지배를 당했으나 여부였다.

그는 "A씨의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심리적 지배를 당해 합리적 사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A씨의 지속적인 요구와 강압에 따라 동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장기간에 걸쳐 의사·무의식적 심리적 지배를 당한 것을 의미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에 대해 A씨의 가혹행위에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B씨는 "A씨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었고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 까지 동거하다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 5개월 동안 부모와 지내면서 A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살폈다.

2023년 8월께 B씨가 부모를 설득해 A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2020년 12월 A씨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스스로 외할머니 집으로 갔다는 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생활비(월 20만원)를 제때 내지 않자 가혹행위가 이어졌다는 A씨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다"면서 "다만 B씨의 얼굴 상해에 대해서는 철봉운동 과정에서 다쳤다 A씨의 주장보다는 A씨가 주먹으로 때린 상처라는 것이 더 납득이 된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법원 "미성년 학폭 가해, 부모에게도 책임"

### 광주지법, 정신적 고통 위자료 줘야

미성년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일 경우 부모가 피해학생과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상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학생 2명의 부모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

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 부모들에게 공동으로 피해 학생측에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가해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지난 2022년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과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넘겨졌다.

심의결과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와 특별교육 징계가 결정됐다. 학교 징계와 별도로 가

해학생들은 지난해 2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보호자 감호 위탁·보호처분 등의 결정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돼 21차례 심리상담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은 당시 11~12세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도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가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가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작가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작가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